3선 고지 노리는 이윤석… 예선 서삼석·본선 박준영 '산넘어 산'

정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이름	**전평진**	**주영순**	**백재욱**	**서삼석**	**이윤석**	**주태문**	**김재원**	**박준영**
나이	54	70	51	56	56	51	59	69
약력	·현) 당 장흥·강진·영암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 비서관	·현) 국회의원 ·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특보	·전) 무안군수 ·전) 전남도의원	·현) 국회의원 ·현) 더민주 조직본부장	·현) 더민주 조직본부장 ·전) 국회정책 연구위원	·현) 세한대 교수 ·현) 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현) 민주당 공동대표 ·전)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선거구

새누리당 주영순-전평진 공천 경쟁 벌일 듯
더민주 이윤석·백재욱·서삼석·주태문 출마
김재원 세한대 교수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
"호남정치 복원" 민주당 박준영 전 지사 도전

■누가 뛰나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영암이 기존 무안·신안 선거구에 새롭게 통합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영암이 무안·신안에 합해지면서 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결이 아닌 '더민주와 민주당' 후보간 치열한 대결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박 전 지사의 선전 여부에 따라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아닌 제3당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지역 최대 빅매치 지역구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재선인 더민주 이윤석 의원이 3선 고지를 넘어설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 선거구는 전남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섬이 많아, 이들 섬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율에 따라 각 후보들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민의당 후보가 더 많은 전남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이 선거구는 국민의당이 아닌 더민주 후보간 예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및 무안공항 이전 문제와 신안 섬지역 연륙교 개설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 현안문제도 이번 총선에서 해당 선거구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주영순 의원(비례대표)과 전평진 장흥·강진·영암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주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안 출신인 주 의원은 목포상공회의소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거친 실물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을 3년간 맡으면서 지역을 잘 살피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현재 신안을 중심으로 바닥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재선 고지 점령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영암 출신인 전 후보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새누리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후보는 지난 25년간 지역에서 활동, 그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별 여야독식구도를 깨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F1 경기장 주변 경정장 유치, 영산강 살리기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현직 이윤석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특보, 주태문 더민주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8대 당시 국회에 첫 입성한 이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그리고 전남도당위원장과 조직본부장·수석대변인·당무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남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더민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조직본부장을 맡는 등 당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2013년 예산편성 당시 300명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역예산을 증액,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총선에서 '힘 있는 3선 의원', '능력이 검증된 성실한 의원', '중앙에서 통하는 의원'이라는 기치를 토대로 더 많은 지역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직면하고 있는 3선 고지는 만만치 않다. 더민주에 대한 지역민심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당 후보와 치열한 예선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서삼석 전 군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 서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치적 맞수인 이 의원과 맞대결에서 아쉽게 패했다. 무안 출신인 서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전남도의원, 무안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 중앙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 후보의 최대 강점은 정치와 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무안에선 3선 군수를 지냈는데, 10년 이상 지역민과 부대끼며 만들어낸 높은 인지도와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소금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뒤 '서남부권 100년 대계'를 위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KTX 무안공항경유 및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섬 지역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 후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영암이 합해지면서 영암 유권자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태문 사무처장도 당내 공천경쟁에 뛰어든 뒤 지역민심을 다져나가고 있다. 무안 출신인 주 후보는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새천년민주당 정책전문위원·직능국장, 통합민주당 조직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 후보는 30년 이상 중앙당에서 활동하면서 탄탄한 인맥과 풍부한 경험 등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총선에 출마, 낙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공정한 사회만들기를 비롯해 SOC 사업 확충 등을 제시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는 백재욱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뒤 지역민심을 훑고 있다. 신안 출신인 백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당**=김재원 세한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국민의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인 김 후보는 국민회의 전남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신구 세력 간 대결이자 구태세력과 뉴디제이간 대결이다. 무능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새누리당과 얄팍한 기득권에 안주하여 자신들의 재선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지역개발전문가로서 이론과 행정을 겸비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계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과 함께 전략적 마인드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전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영암 출신으로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호남정신을 재창조하겠다"며 이번 총선에 자신이 태어난 영암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의 최대 강점은 김대중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에 이어 전남도지사 3선 역임을 하면서 확보한 풍부한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이다. 그는 이를 토대로 "소외계층과 소통하고 정책선거로 승부하겠다"며 총선 행보를 다지고 있다. 박 대표는 특히 고향인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신안에서도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의 선전 여부에 따라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아닌 제3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다. 그는 "호남이 점차 고립되고 있고 정치적인 면에선 왜소화됐다. 지역경제가 낙후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전남도지사를 한 경험을 토대로 호남고립문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관전 포인트

이윤석-서삼석 리턴매치 승자는 누구?

영암·무안·신안의 관전포인트는 더민주 이윤석 의원의 3선 여부다.

지난 18대 당시 국회에 첫 입성한 이 의원은 더민주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조직력을 앞세워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는 이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당내 입지도 한층 더 굳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당내 경선이다. 이날 현재 더민주에선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이번 총선에서 지켜볼 대목은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리턴매치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현장투표 합산 51.2%를 기록, 48.8%를 차지한 서 전 군수를 가까스로 이겼다.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영암마저 기존 지역구에 합해지는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이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 박준영 공동대표와 본선을 치러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이 의원은 18대 당시 김홍업 의원을 351표차로 따돌리고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19대 땐 동교동계 좌장격인 한화합 전 민주당 대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거구 특징

섬 투표율·영암 유권자 표심에 승패 좌우

영암·무안·신안은 기존 무안·신안 선거구에 영암이 합해진 점이 특징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무안·신안을 중심에 두고 선거운동을 편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합해진 영암 유권자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다.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해당 지역구 인구는 18만4060명으로 유권자 수는 15만1242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암 5만8385명(유권자 4만7793명) ▲무안 8만1498명(〃 6만4254명) ▲신안 4만4177명(〃 3만9195명) 등이다. 유권자 수는 늘었지만 영암 유권자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번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구는 '더민주-민주당' 후보간 맞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영암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에 따라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지역구는 섬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신안 섬지역 주민들의 투표율 높낮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유불리도 갈릴 전망이다.

신안이 텃밭인 후보 입장에선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겠지만 반대라면 이번 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